

당신의 PC를 위협하는 10가지

‘디도스(DDoS), 농협 전산장애 사태, 현대캐피탈 해킹, 한국전자금융 해킹...’을 상반기에는 기업 대상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모바일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보안 기업인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가 12일 ‘2011년 상반기 10대 보안 위협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소니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농협·현대캐피탈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전산망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러한 보안 위협들은 톨즈섹(LulzSec)과 같은 해커집단에 의해 발생했고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보였다.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사용자 모르게 루트(Root) 권한을 획득하는 루팅(Rooting)을 수행하는 Zif, 사용자의 통화 목록과 문자 내역 그리고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탈취하는 키드로그거(KidLogger),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드로이드콩후(DroidKungFu)가 대표적이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악용한 악

금융기관 등 기업대상 악의적 해킹 빈발 모바일·맥OS·SNS 겨냥 악성코드 활개 암호 주기적 변경·공인인증서 관리 ‘주의’

성코드도 크게 증가했다. 이들 악성코드는 주로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윈도우 시스템 파일을 패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SNS 열풍이 불면서 SNS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 일본 대지진 관련 기사나, 빈라덴 사망 관련 동영상으로 위장한 가짜 백신들이 유포돼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짜 백신은 사회공학기법을 악용한 피싱 기법을 활용해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게임 해킹 톨도 크게 늘고 기법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안랩에서 발견한 온라인 게임 해킹 톨은 모두 405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 가량 늘기도 했다. 해킹 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메모리, 게임 파일, 서버 등에 접근하여 데이터 등을 변조

함으로써 게임 플레이를 불공정하게 이끄는 온라인 게임 해킹 톨은 보안 솔루션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이 많이 적용되는 추세였다.

특히 기존 윈도우 운영체제를 겨냥한 악성코드가 주를 이룬 것과 달리, 맥 OS를 겨냥한 악성코드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윈도우 운영체제에 존재하는 정상 시스템 파일을 악의적 목적으로 패치하거나 변경해 윈도우 시스템 파일을 삭제하는 악성코드도 급증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뱅킹 해킹이 더욱 대대적이고, 진짜 백신으로 위장한 가짜 백신이 등장하고, 악성코드 첨부 메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 스스로 더욱 세밀한 보안 설정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충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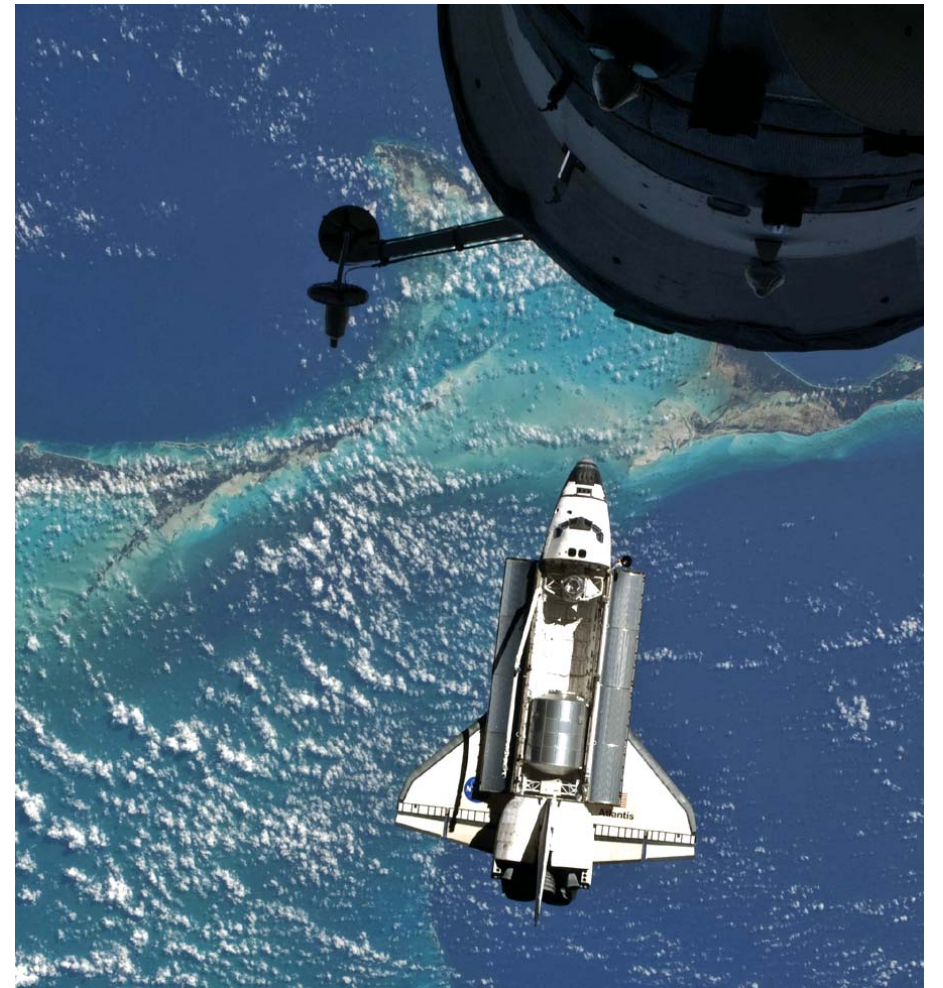
■안철수연구소 ‘10대 보안 위협 트렌드’

1. 기업 대상 악의적 해킹 시도 증가
2. 더욱 대대해진 온라인 뱅킹 해킹
3. 모바일 악성코드 기승
4. SNS로 유포되는 악성코드 급증
5. 진짜 백신 위장 가짜 백신 등장
6. 윈도우 시스템 파일을 패치하는 악성코드 증가
7. 악성코드 첨부 메일 증가
8.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악용한 악성코드 증가
9. 맥 OS 겨냥한 악성코드 본격화
10. 온라인 게임 해킹 톨 기법 다양화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 이호웅 센터장은 “악성코드나 해킹이 점차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SNS, 검색, 온라인 뱅킹, 온라인 게임 등 편리한 인터넷 환경 어디든 보안 위협이 지퍼처럼 묻혀 있다”며 “따라서 자신의 정보와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보안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뱅킹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공인인증서 관리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美 아틀란티스호 ‘마지막 도킹’ 11일(이하 한국시각) 미국의 마지막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하기 위해 선회하고 있다. 지난 9일 발사된 아틀란티스호는 12일간의 임무를 마친 후 지구로 귀환한다. /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장 박태학 박사 선임

“나로호 실패 교훈삼아 반드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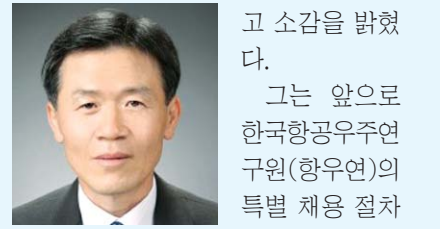
국내 독자기술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사업’을 지휘할 첫 번째 수장이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태학(朴泰鶴·56·사진) 박사를 한국형발사체(KSLV-II)개발사업의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북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박 박사는 1978년 이후 30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대형복합시스템을 연구하며 주요 사업에 참여한 기체구조 설계·개발 분야 전문가다.

2009년에는 나로호 1차 발사 조사위원회에서 ‘페어링(덮개) 전문조사 태크스포스(TF)’ 팀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 1소위원회장을 맡아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한 기술 조사를 총괄하고 있다.

박 박사는 선임 발표 직후 “30년간의 유도무기 개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만큼, 나로호 발사 실패를 교훈삼아 반드시 한국형발사체사업을 성공시키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특별 채용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장으로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직제상으로는 단장은 항우연 원장 밑의 본부장급이지만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게 된다. 임기 4년의 신임 단장은 한국형발사체사업 1단계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1단계의 주요 과제는 ▲역체엔진 시험설비 구축 ▲발사체시스템 및 75t급 액체엔진 예비설계 ▲3단용 5~10t급 액체엔진 종합연소시험 등이다. 4년 동안 성과 평가가 좋으면 다음 단계까지 단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아리랑 위성과 같은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올려놓을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연합뉴스

광고만 보면 문자 300건이 무료

KT, 스마트폰 어플 ‘프리즘’ 출시

KT는 모바일 벤처기업인 ㈜씨이엠과 함께 광고를 보면 무료 문자 메시지 혜택을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리즘(FREESMs)’을 선보인다.

프리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제휴사의 상품 광고나 할인쿠폰 정보 등을 보면 매일 문자 300건을 무료로 보낼 수 있다.

문자는 프리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고, 일반 문자 수발신 기록과도 연동 된다.

9월에는 위치기반광고와 소셜커머스가 결합한 형태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갤럭시S2, 옵티머스블랙, 테이크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는 올레마켓(market.olleh.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8월에는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등록된다.

KT 관계자는 “‘프리즘’은 고객에게 무료 문자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줄뿐 아니라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광고채널을, 중소 벤처기업과 통신사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고객-광고주-통신사의 윈윈 서비스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피스 프로그램 없어도 문서작업 술술

LGU+ ‘박스 웹오피스’ 출시

클라우드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서비스가 나왔다.

LG유플러스는 PC에 유료 사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설치할 필요없이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플러스 박스(U+Box) 웹오피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U+Box 웹오피스는 MS오피스와 높은 호환성을 갖춘 ‘함글과컴퓨터’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씽크프리(thinkfree)와 제휴한 순수

국산 기술의 서비스다. PC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U+Box에 접속해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 및 편집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USB 등 저장 메모리 휴대의 번거로움과 분실걱정 없이, 작성한 문서를 U+Box에 안전하게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불러올 수 있으며, MS 윈도우는 물론 애플OS, 리눅스 등 다양한 OS 기반의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PC에 저장된 파일도 편집이 가능하며 문서는 U+Box 및 PC에 저장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hpdynastycc.co.kr

지구를 위한 품격있는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사계절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함평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320-7700·7777